

기름 유출 피해·생계 위협...진도 주민 '냉가슴'



세월호 참사

세월호 참사 이후 생업을 제쳐두고 묵묵히 구조와 수색·방재 작업에 동참했던 진도 주민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팽목항이 사고대책본부 등의 시설이 들어서면서 항구 기능을 상실함에 따라 진도와 조도 등을 잇던 선박의 운항 횟수가 급감하고, 주민과 물자 이동이 제한되면서 섬 주민들의 불편과 경제적 손실이 한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 세월호 기름유출 여파로 '진도산 수산물 기피 현상'까지 빚어진 데 이어, 관광산업마저 타격을 받아 어민은 물론 군민 전체의 생계가 위기를 맞고 있다. 하지만 진도 주민들은 대참사 앞에서 속수무책이다.

◇진도 수산물 기피...직격탄 맞은 수산업=기름띠가 덮친 동·서거차도와 인근 해역에 펼쳐진 41ha 크기의 미역 양식장은 물론 청정해역에서 자생한 미역, 돛, 뜰무기 등 자연산 해조류는 기름띠 피해 여부

수산업 직격탄 주문 '제로'...관광철 식당·숙박업소 울상 조도 등 섬 지역 선박 운항 대폭 줄고 생필품 수급 불편

와 관계없이 출하 포기 상태다. 기름띠 피해 지역은 출하 포기하고 2~3년의 자연복구 기간이 필요함은 물론 운 좋게 피해를 입지 않은 현장도 진도산 수산물 기피 현상으로 인해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인터넷과 전국 주요 소비처를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 '진도산 어류 기피현상'으로 인해 양식장에서의 성어 출하 감소는 '치어' 판매 부진으로 이어지는 등 피해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광어, 농어, 감성돔 등 10여종 물고기의 알을 가져와 부화를 거쳐 진도, 완도는 물론 제주와 경상도 등 전국으로 팔려가는 치어도 해마다 불철이 면 주문 전화가 빗발쳤지만 올해는 주문이 '제로' 수준이다. 알 구매비용, 전기료 등 부화장 마다 수천만원에서 1억원 가량의 경비를 손해로 떠안을 상황이다.

광진수산영어조합법인 조영화(47) 씨는 "올 초에 300만 마리의 알을 들여와 바

때 관광지 인근 식당과 숙박업소들도 생계에 직격탄을 맞은 상태다.

◇줄어든 배길에 불편도 심각=팽목항이 사고대책 본부로 이용되면서 조도 등 섬 주민 불편도 계속되고 있다. 사고 전 하루 8차례씩 팽목항과 조도 선착장을 오가던 배들은 사고 직후 마려던 임시 선착장을 통해 2~3차례로 운항 횟수가 대폭 줄어들었다. 여기에 수심이 낮은 임시 선착장은 물때에 따라 배의 출항이 제한적이고 때때로 배는 물때로 인해 배시간도 유동적이었다.

배길에 막히는 바람에 조도 주민 3000여명은 생필품 공급은 물론 주요 소득원인 농수산물의 이동마저 제한돼 불편을 넘어 경제적 손실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이에 대해 진도군은 범정부대책본부와 협의를 통해, 팽목항 임시 선착장 대신 쉬미항과 서망항에서 조도를 오가는 배를 출항 시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이마저도 시험운항(2~3일)을 거친 뒤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여 주민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승무원 박지영씨 등 3명 의사자 선정

보건복지부는 12일 오전 2014년도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세월호 사고로 숨진 승무원 박지영(22·여), 김기웅(28), 정현선(28·여)씨 등 3명의 의사자로 인정했다.

박씨는 세월호 침몰 당시 혼란에 빠진 승객들을 안심시키며 구명의를 나눠주고 구조선에 오를 수 있도록 돕다 자신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다. 연인 사이인 김씨와 정씨도 사고 당시 학생들의 구조를 돕고 선내에 남아 있는 승객들을 구하려 들어갔다 사망했다. /연합뉴스

수색 재개 안간힘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에 사흘째 가로막힌 수색작업이 좀처럼 재개되지 못하면서 실종자 가족들의 애타고 있다.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세월호 참사 27일째인 12일 오전 풍랑주의보가 해제되면서 피항했던 항정을 복귀시키고 잠수사 투입을 준비했지만 이틀간 지속된 악천후로 50m가량 밀린 바지선 위치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와이어가 끊어진 사실을 발견, 다시 연결하느라 이날 오후 7시 현재까지 수색을 재개하지 못했다.

법정부사고대책본부는 이에 따라 향후 중점 수색 구역과 붕괴 위험 지점에 대한 우회 진입 방안 등을 발표했다. 대책본부는 12일 "예약자 현황과 실종자 발견 지점 대조 결과를 토대로 4층 선미 다인실 3곳과 5층 중앙 부교사 예약 객실, 3층 선미 기사·선원 침실 등을 중심으로 수색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도=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부실 초기 대응 해경 수사 임박

세월호 침몰 사고 과정에서 부실한 초기 대처로 국민의 공분을 샀던 해양경찰에 대한 수사가 임박하면서 해경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12일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따르면 사고 책임을 물어 구속한 세월호 선장을 비롯, 3등 기관사, 조타수의 구속기간 만료(16일)가 예정되면서 다음 수순으로 허술한 대응으로 비판을 샀던 해경에 대한 수사가 예고되고 있다. 수사본부는 지난달 28일 목포해경과 전남도 소방본부 상황실, 제주·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를 압수수색해 근무 일지와 당시 교신 녹취록을 확보한 상태로, 당시 적절한 초기 대응에 대한 문제점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DFC)의 세월호 침몰 직전 경사도 분석 결과 및 이미 공개된 구조 영상 등을 통한 당시 구조 상황 재구성 작업도 일정 수준 이뤄졌다는 점에서 출동부터 현장 대응, 주변 유관기관 협조 요청, 매뉴얼 무시한 초동 대처의 적절성, 진도VTS의 관제 소홀 등을 따지기 위한 해경 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수사본부 안팎에서는 선박의 깨진 창문 사이로 승객들이 구조를 기다리는 상황을 지켜보는 등 안일한 대응 장면이 담긴 영상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는 등 해경 책임론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종행기자 golee@



팽목항 '5월의 눈물' 광주 5·18 민주화 운동 당시 피해·희생자들의 어머니 모임인 '5월 어머니집' 회원들이 12일 오후 진도 임회면 팽목항에 도착해 실종자 가족을 위로한 뒤 바닷가에 서서 기도를 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유병언 장남 소환 불응...체포영장 검토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 장남 대균(44)씨가 12일 검찰 소환에 불응, 항후 검찰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희종 2차장검사)에 따르면 대균씨는 출석 통보 시간인 이날 오전 10시가 넘어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검찰은 대균씨가 특별한 이유없이 출석을 미루고 있다

고 판단, 재차 출석을 요구하는 한편 체포영장 청구 등을 포함한 강제 수사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해의 체류 중인 유 전 회장 차남 혁기(42)씨와 장녀 섬나(48)씨, 측근 김해경(52) 한국제약 대표, 김필배(76) 전 문진미디어 대표에게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소환 절차를 밟고 있다.

대균씨는 일가 계열사의 지주회사 격인 아이원아이홀딩스(19.44%)를 비롯해 ㈜다만다(32%), 트라이콘코리아(20%), 한국제약(12%) 등 4개사의 대주주다. 검찰은 대균씨가 동생 혁기(42)씨와 함께 유 전 회장의 지시를 받아 사실상 계열사들을 경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균씨는 유 전 회장, 혁기씨와 함께 서류상 회사(페이저컴퍼니)를 설립, 수년간 계열사 30여 곳으로부터 컨설팅비와 상표권 수수료, 고문료 등의 명목으로 수백억원 가량의 비용을 받은 것으로 전해

실종자가족 '좀비' 표현 무개념 50대

○...전남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2일 세월호 참사 실종자 가족을 '좀비'로 표현한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정보(52)씨를 입건.

○...정씨는 지난달 20일 충북 청원군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게시판과 페이스북에 '현상 수배-진도체육관에서 선동질하던 좀비를 잡읍시다(삼품권 있음)'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실종자 가족의 사진을 첨부해 올린 혐의.

○...경찰에서 정씨는 "실종자 가족으로 위장 잡입해 선동하는 사람이 있다는 글을 인터넷에서 보고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한 것"이라며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글과 사진을 게시한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선처를 호소.

/김지울기자 dok2000@kwangju.co.kr

15P - 13층

- 실평 - 9P
- 방향 - 무등산
- 대출 - 1200만원 안고 가능
- 임대 - 3백만원에 25만원 가능
- 시세 / 분양가 - 5천만원
- 매매가 - 3400만원

29P - 12층, 15층

- 실평 - 18P
- 방향 - 하천
- 용도 - 주거겸 사무실
- 대출 - 2천5백만원 ~ 3천만원 가능
- 임대 - 보5백만원에 월35만원 가능
- 시세 / 분양가 - 1억 정도
- 매매가 - 6천5백만원

수기동 오피스빌 "금매"

회사 사정상 금매, 문의 010-3605-5000

53P - 전체 올수리

- 실평 - 33P
- 방향 - 양동 ~ 하천쪽, 코너, 전망 좋음
- 용도 - 주거겸 사무실
- 대출 - 5천만원 ~ 1억원 가능
- 임대 - 보2천만원에 월80만원 가능
- 시세 / 분양가 - 2억 정도
- 매매가 - 1억5500만원

경매투자

▶경매 특수비법
배우면서 투자 하실 분
▶NPL과 특수물건만 입찰
▶단독, 공동투자 가능
▶개인지도, 3개월 완성
▶임장/교육비 등 1200만원
단, 상담후 본사 결정

(주) 오 천 경 매
H,P 010-3605-5000

투자자 모심

1억원 이상, 1년 정도